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

범도민 유치 기원 목소리 잇따라

상반기 선정 결과 발표 따라 도내 기관·기업 등과 협업 특화단지 유치 분위기 확산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취임식에서 진행된 전북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퍼포먼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도전한 가운데 도민들이 하나 되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산업부 주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이후 도내 기관, 기업, 단체 등이 범도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교육청, 출연 기관, 대학, 병원, 기업과 기관단체 등이 힘을 모아 각 기관 청사 건물 대형현수막과 도내 교통요충지에 400개 이상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기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메시지를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현수막 게재를 통한 도민 관심을 끌어낸 데 이어 원광대학교는 지난 4월 24일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 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갖고, 첨단바이오 의학 품 관련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5월 29일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를 비롯한 허버드(최학수 교수), 웨이크포레스트(이상진 교수), KIST 유립연구소(김용준 단장)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 기관의

석학 등 100여 명이 모여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집에 나선 바 있다.

얼라이언스는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병원 등이 참여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사무국을 두고 6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 산업 발전 네트워크 구축,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1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바이오 지식포럼을 시작으로, 전북연구원(백년포럼),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도의회(농산경제위원회), 전지민원모니터단, 라온봉사단을 비롯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

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전북분소) 등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열망 표출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이어져 20회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농업전북지역본부, 전북지구 JC회원, 전북벤처협회 등 12개 기관 등에서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혀, 7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경기, 대전, 충북 등 1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기존에 구축해 온 인프라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바이오기업 투자유치(2024년~ , 16개사), 연이은 관련

기관 업무협약(26건)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산·학·병·연·관이 '원팀'을 이뤄 대응하고 있다.

충북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골자로 한 상상협력을 맺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평가 당일 김관영 도지사가 연사로 직접 나서 수준이 높은 발표를 진행해 심사위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후일담도 있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기존에 집적화된 연구소와 기업 등 바이오 분야에 인프라와 감점이 있어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명경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결과발표까지 도민 여러분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 지사, 직무수행 평가 '2위'

리얼미터 17개 광역지자체장 직무평가 결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1위는 경기 김동연 지사(58.8%)다.

지난 4월 3위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2위 자리를 꿰찬 것이다. 째미리 파행 논란 등의 악재를 딛고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바이오 특구 유치 노력 등이 도민들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에 대한 5월 긍정평가는 전월 62.8%보다 5.8%p 하락한 5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대부분 하락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 평가가 하락한 가운데 경기 김동연 지사가 5월 도정 운영 긍정평가 58.8%를 기록해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김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2위와 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 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 8기 전복 도정의 진취적인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도민들이 전북자치도의 활기찬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정은 지난 2년간 열심히 뛰고 있다."라며 "전북경제의 도약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전북도정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전북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냈다."라면서 "연이은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해 냈다. 도민들의 기대와 소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민의 삶을 보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과도한 집행잔액·이월액 최소화, 정확한 성과보고서 작성 등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지난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 8, 도교육청 8)의 시정 요구 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 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441억 7,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3,100만 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상 잉여금 중 큰 금액은 명시이월 중 배수개선사업 약 132억 원이고, 사고이월 중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8억 원 등이다.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

게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집행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6,176억 9,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 6,520억 3,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3,618억 8,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7억 4,300만 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산상 주요 이월액은 399억 원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으로 사업 학교 추진상황에 따라 5개년동안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고,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확인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으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8일까지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김석환 의원은 정읍 생화학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변혁하자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의 건설기계기사 운영 개선 및 증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19일부터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으며,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가 있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후,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정반기 고창군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만)를 열어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종훈 의원과 이선덕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며, 이후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업이 중심 되는 새만금'

새만금청 주관 '기본계획 재수립 합동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문연구진은 '기업중심'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를 계획에 담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

우선, 이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 지역 내의 연계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역발전 개념을 새롭게 적용해 주변 거점 도시와의

연계·접근성 강화 등 새만금이 광역 발전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노출부지를 개발용지로 새롭게 편입하는 방안과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지가능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10.1조원 투자 유치로 변화한 산업단지 입주 및 개발여건 등을 반영해 입주기업·근로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첨단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대표 및 전문가 토론회로 전개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발굴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역별 참여의 의미가 있었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산업용지 확대'에 대한 것으로, 각 시·군에서 각기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수상태양광 사업부지, 관광용지 등 기존부지의 용지기능 변경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제기된 의견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연구진과 함께 수요·공급 종합성과 사업 타당성, 주변지역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담보 상태' 농협 개혁 의제 해결되나?

민주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으로,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마지막은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별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으로,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마지막은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별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장연국 의원 선출

'도정발전·도민 민생 최전선에 앞장 설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2시, 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장연국 의원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장연국 신임 원내대표(운영위 부위원장, 비례)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가 견제와 협치를 통해 발전하고 유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주저함 없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겠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언급했다.

장연국 의원은 "광역 시·도 교섭단체 모임인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회의의원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원별 1인 정무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연국 신임 원내대표는 "담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